

# “청소년 예술교육, 예술·인간 탐구 병행을”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서 제기  
“가치·비전 마인드도 중요”

‘청소년 예술교육’ 프로젝트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예술 이해와 인간 탐구가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의 전남대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기됐다. 최근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위원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김영순 전문위원



광주문화재단이 2021년 진행한 ‘웰컴 투 마이 아트 하우스’ 프로젝트 장면. <광주문화재단 제공>

‘실존적 현상학의 기술융합형 예술교육 적용에 관한 고찰-청소년 프로젝트 사례를 중심으로’. 김위원은 “제4차산업혁명의 영향으로 기술융합형 예술교육이 빈번히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예술교육은 인간의 실존 문제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내가 누구이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보다 새로운 기술 배우기에 편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논문을 쓰게 된 배경을 밝혔다. 김위원은 이번 논문을 쓰기 위해 광주문화재단의 2021년 ‘웰컴 투 마이 아트 하우스’와 춘천문화재단의 ‘무대는 살아있다’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두 청소년 프로젝트는 미디어아트를 기반으로 한 예술교육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위원은 현장연구를 중심으로 자료를 통해 보완하고 실존적 현상학에 기반을 둔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와 메를리 폰티의 이론에서 키워드를 추출했다. 이들 철학자들의 키워드는 ‘인간미, 사유, 관계성, 경험’으로, 김위원은 철학자들의 사유체계를 인용해 주장을 보완했다.

또한 연구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청소년 프로젝트의 시작, 진행, 마무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석”을 진행했다. 프로젝트를 끝난 후에는 참가자들의 설문과 소감 후기, 인터뷰를 부가했다. 먼저 광주문화재단의 ‘웰컴 투 마이 아트 하우스’는 전국 청소년 참여 확대와 인택트 시대 맞춰 대면과 비대면 혼합교육 실시, 생소한 장르에 대한 이해 제고 등 유익한 경험을 남겼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다고 전제한다. 그는 “광주문화재단의 프로젝트의 경우 스토리텔링 기반의 프로젝트를 지향함으로써 단순 기술 익힘이 아니라 이야기 구조 속에서 청소년들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며 “이는 체험 활동을 통하여 예술에 대한 생각, 인간에 대한 탐색이 이뤄졌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청소년들이 결과적으로 자신의 사유 확장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김 박사는 춘천문화재단의 경우에도 “열릿 기술에 치중된 듯 보이지만 운영과정에서의 활동이 상호배려와 존중, 예술의 이해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고 덧붙였다. 물론 한계도 있었다. 예술교육의 현장 사례연구와 실존적 현상학 분석에 있어 연구 모형 설계를 완결하지 못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다시 말해 “현장 연구와 실존적 현상 연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점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급한 대로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인간 본질 탐구를 도모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예술이해와 인간 본질 탐구를 프로젝트 과정에서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선 기획자를 비롯한 예술가, 스태프 등 참여 인력 모두가 예술교육의 가치와 비전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며 후속 심화프로그램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위원은 “열린 기획안 편성에 탄력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며 “예술교육은 청소년들이 미래를 대비하면서 그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야 할 인간에 대해 생각해보는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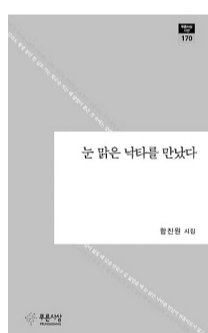
# 츩고 허기질 때 수선화처럼 살아보라

함평 출신 함진원 시인 세번째 시집 ‘눈 맑은 낙타를 만났다’ 펴내

“츩고 허기질 때 수선화처럼 살아보라는 마음이 있어 다시 행장을 꾸려 길을 떠난다.” ‘시인의 말’은, 시보다 더 많은 시를 함축하고 있다. 사실 시를 쓰는 것보다 ‘시인의 말’을 쓰는 것이 힘들다. 작품은 은유와 비유, 상징과 수사로 속내를 감추고 페르소나를 앞세울 수 있지만, 시인의 말은 날것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곤 한다. 함진원 시인의 경우도 그러했다. “낮아지고 낮아지면서 먼 산을 자주 만나고 싶다”는 말에서 ‘낮아짐으로 높아지는’ 궁극의 삶의 미학을 느끼게 한다. 시인은 “푸른 언어를 찾아가는 길은 쓸쓸하였다”며 지나온 삶이 다분히 ‘시적인 삶’이었음을 예뉘러 말한다.

함평 출신 함진원 시인이 세 번째 시집 ‘눈 맑은 낙타를 만났다’ (푸른사상)를 펴냈다. 모두 60여 편이 담긴 작품집은 독백조의 단아하면서도 울림이 있는 시들로 채워져 있다. 시가 지닌 힘을 노래하는 작품은 “울퉁한 길을 묵묵히 걸으면서 낡고 오래된 풍경을” 내면에 담으려는 바람과 연계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들은 ‘개별자로 존재하는 인간이 아닌 다른 이들과 부단히 어울리는 존재’를 노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따뜻하다. 맹문재 시인은 이를 가리켜 “공동체적 유대감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평한다. “어쩌다 본게 봄이 훌쩍 가부렀어야 울봄에도 니 얼굴 못보고 말야분께 조가 서운해서 죽겠다야 복사꽃도 진직 피어불고 유채꽃도 만발해부렀는

디언제 한번 와볼란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바베 살아서 어쩌다나 니기 아부지도 인자 가불고 혼자일도 못하겠어야 우리도 엄니가 편해 죽겠네 제 발아프지만 마소 일이고 뭐고 아프지나 마소...’ ‘봄이 다 가부렀시아’라는 시를 읽다보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지나온 일상과 편린들이 따뜻하게 가슴에 적셔움을 느끼게 된다. 봄이 다 가버렸다는 것은, 츩고 배고픈 시절 지나 모처럼 봄을 맞았지만 이내 달아나버려 몸시도 안타깝다는 마음을 상기한다. 그럼에도 회오와 체념의 시간일지언정 언젠가 다시 봄이 오리라는 일말의 희망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그의 시는 “반드시 가야만 되는 길 그 길을” 향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해외서 장사해 볼까’ 생각 들걸요?

tvN 새 예능 ‘장사천재 백사장’ 이번주 일요일 첫 방



요식업 창업 컨설팅 예능 ‘골목식당’에서 호랑이 선생님이었던 백종원이 해외에서 한식집 창업에 나선다. 백종원은 tvN 새 예능 ‘장사천재 백사장’ 제작 발표회에서 “방송 끝까지 보고 나면 ‘해외에서 장사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장사천재 백사장’은 백종원이 한식 불모지에서 직접 창업부터 운영까지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요리연구가이자 사업가인 백종원의 장사 노하우를 확인할 수 있다. 백종원이 찾은 곳은 한식당이 한 곳도 없는 이탈리아 나폴리와 150개 노점상과 경쟁해야 하는 모로코의 야시장으로 배우 이장우, 가수 존박, 권유리, 뱀뱀이 함께한다. 백종원은 출연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묻자 “제작진이 처음에는 ‘한식 세계화’라는 얘기를 하다가, 제가 반응을 안 보이니 나중에는 ‘안 되실걸요’, ‘창업 힘들죠’라고 자극했다”라며 “제가 육하는 면이 있어서 하게 됐다. 비행기 타면서부터 후회했고, 초반에는 욱도 몇 바가지 했다”고 웃었다. 이어 “해외에서 사업 준비도 해봤기 때문에 새로운 게 있을까 싶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이거 될(성공할) 수도 있겠구나’ 싶은 아이템도 보였다”며 “처음에는 음식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음식을 먹는 방법부터 다른 요소들이 있다. 한식 장사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 부분들도 있다”고 귀띔했다. 백종원은 “나폴리에는 스키집이 많고, 밤마다(손님들이) 줄을 선다. 경쟁은 아니지만 자극받아서, 우리 식당도 저렇게 줄을 서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며 “(저는 사업가니) 매출을 올리지 않

으면 망신이라 마케팅부터 음식까지 신경을 많이 썼고, 출연진과 밤마다 회의했다”고 덧붙였다. 연출은 백종원과 지난해 예능 ‘백파커’를 함께 했던 이유형 PD가 맡았다. 이 PD는 “3~4년 전부터 논의한 기획이지만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 인제야 선보이게 됐다. ‘월렛(월드클래스) 도전’이라며 ‘골목식당’의 멘토인 백종원의 도전으로 ‘얼마나 잘하나’라는 생각으로 봐주셔도 재밌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PD는 최근 해외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예능이 잇따라 나온 가운데 ‘장사천재 백사장’이 어떤 차별점을 내세울 수 있는지를 묻자 “우리 프로그램은 ‘힐링’이라고 보다는 ‘킬링’”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식의 세계화에 초점을 맞췄기보다는 백종원이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 해외 창업이 가능한지를 집중해서 보여주고 싶었다”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오픈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출연진은 한식도 쉬지 않은 백종원에게 놀랐다고 입을 모으며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권유리는 “(백종원) 선생님이 8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고 앉지도 앉으니 저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떠들었고, 이장우는 “백종원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열심히 사는 분인지 몰랐다.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를 빨리 일궈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존박은 “요즘도 장사하는 꿈을 꾸는데 악몽인지 좋은 꿈인지 모르겠다”고 했고, 뱀뱀은 “촬영장에서는 아이돌이 아니었다. 저를 내려놓고 촬영했다”고 돌아왔다. 다음 달 2일 오후 7시 40분 첫 방송. /연합뉴스

평생어부바  
**광주문화신탁**

든든한 금융의  
따뜻한 협동의

#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5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	----------------------------	--------------	-----------------------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통광주지점, 각학지점